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4.(수) 13:00 배포 2026. 11. 4.(수) 06:00

“맛으로 잇는 세계, K-푸드로 통하다”… 「푸드위크 코리아 2026」 화려한 막 올려

- 국내 최대 규모 B2B2C 식품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46개국, 1,000개사, 1,800개 부스)로 개막
- B2C 중심에서 글로벌 B2B 비즈니스 중심으로 대전환 … 바이어 252개사 대거 유치로 K-푸드 수출 영토 확장
- AI·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비전 제시와 함께,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31명) 격려

전 세계를 매료시킨 K-푸드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 박람회인 「푸드위크 코리아 2026」이 11월 4일(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11월 7일(토)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푸드위크 코리아는 기존의 소비자(B2C) 중심 행사를 넘어, 글로벌 B2B 비즈니스 중심의 박람회로 도약하는 원년을 선언했다. 전 세계 46개국에서 온 250여 개사의 유력 바이어와 역대 가장 많은 국내 1,000여 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 가상현실(VR) 드로잉과 선재스님 강연으로 여는 식품산업의 미래

이날 오전 C전시홀 메인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전통과 혁신이 융합된 미래 식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3차원 가상현실(VR)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전통 식품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푸드의 확산, 그리고 첨단 푸드테크와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지는 미래 식품산업의 청사진을 빛의 선으로 역동적

으로 표현했다. 이어 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이 '지속가능성과 식품의 가치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K-푸드가 지닌 본질적 가치를 되짚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식문화와 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짚었다.

□ 한식 계승부터 K-푸드 수출 확대까지... 식품외식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 온 주역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전통 한식의 계승·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평생을 바친 (주)한식공간 조희숙 대표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산업포장은 삼양식품(주) 윤아리 상무(계약재배를 통한 농가 보호 및 품질 강화), 월항농협 공선출하회 이대훈 회장(참외 등 신시장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 (주)제너시스 비비큐 동행위원회 이현주 대표(상생협력 및 국산 닭고기 소비 촉진), 농업회사법인(주)감홍로 이기숙 기술이사(전통주 제조기술 계승) 등 4명에게 수여됐다. 이외에도 대통령 표창 7점 등 총 31점의 유공자 포상이 수여되어 자리를 빛냈다.

□ 전 세계 46개국 바이어 집결...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 바이어 대거 유치를 통한 B2B 수출 드라이브다. 46개국 250여 개사의 유력 바이어와 국내 대표 50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등이 동시 개최되어 국내 유망 식품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스페인 최대 유통사인 메르카도나(Mercadona), 일본 최대 B2B 식자재 유통사인 고베물산(Kobe Bussan) 등 글로벌 유력 바이어들이 직접 방한하여 국내 우수 식품기업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신선 농산물(딸기 등) 수출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한 가시적 행보가 이어진다.

또한, K-주막(Jumak) 컨셉의 라이브 쇼케이스와 할랄·비건인증 식품, 유기가공식품 홍보관도 운영하여 K-푸드의 경쟁력을 선보였다.

□ “주방의 미래를 보다”... 최첨단 푸드테크·자동화 기술 시연

전시장 곳곳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푸드테크 솔루션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AI와 자동화가 접목된 스마트 팩토리, 물류·유통 솔루션 및 실제 외식 매장에 도입되는 조리 로봇·스마트 주방 기기 등을 선보인다. 또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 수혜기업 공동 홍보관, 푸드테크 기반의 특수의료용도식품(케어푸드), 로컬 브랜드(감자밭 등), 전통주 및 제철 페어링 하우스 등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 2027 식품외식 트렌드 미리보기... 다채로운 연계행사 개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개막식을 통해 “이번 「푸드위크 코리아 2026」은 국내 우수 식품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가장 강력한 발판이자,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의 혁신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기간 중에는 ‘2027 식품외식산업 전망’,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비건인증·할랄 세미나’ 등 업계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붙임. 「푸드위크 코리아 2026」 포스터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정명희 (044-201-21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푸드위크 코리아 2026」 포스터

